

© The Korean metal movable type printed books and its origin

高麗金屬活字本과 그 起源

尹 炳 泰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司書)

筆者가 여기에서 펴고자하는 예기의 要點은 高麗金屬活字의 起源은 從來의 肅宗 7年(1102)說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文宗때(1047~1083)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高麗史七十七 志卷第三十一 百官二 諸司都監各色에서

書籍店

文宗定錄事二人丙科權務吏屬記事二人記官二人書者二人 忠宣併於翰林院 後復置 恭讓王三年罷 四年置書籍院 掌鑄字印書籍 有令丞

이라는 記事에서, 書籍店을 文宗때 定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掌鑄字印書籍”의 記事는 高麗史節要 卷之三十五에서 恭讓王 四年壬申(1392) 正月初의 記事로

初置書籍院掌鑄字印書籍

라 要約한 것과는 달리, 文宗때 부터 鑄字 즉 金屬活字를 管掌했으며 또 書籍을 印刷한 것이며, 그것이 恭讓王 4年(1392)에 가서 처음으로 鑄字를 管掌했다는 意味는 아닌 것이다. 그 理由로는 다음에 펴는 예기들과 같이, 恭讓王 4年 以前에 鑄字로 印刷한 冊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으며, 現在까지 筆者가 본 文獻이나 實物中에서 그 年度가 文宗時를 앞선 책을 못본 것도 그 理由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高麗史의 書籍店의 記事에서 “掌鑄字印書籍”이라는 語句 다음에 “有令丞”이라는 말이 있음을 보고 恭讓王 4年에만 限한 記事로 보나, 이는 너무나 速斷인 것이다.

그러면 이 때의 文化史의 背景은 어떻게했는가, 자세한 것은 高麗史나 高麗史節要, 그리고 筆者가 編纂한 韓國書誌年表에 나와 있어 省略하거나, 적어도 아래와 같은 일들은 一考할 必要가 있다고 보겠다.

高麗史二 成宗15年丙申(996) 夏四月辛未條에

鑄鐵錢

으로 나와 있다. 이 때 鐵로 錢을 鑄했다는 것이니, 이는 肅宗 7年(1102)의 記事와는 對照해 볼 만하다.

高麗때의 中央(政府)에서의 書籍의 印刷는 秘書省(一名 秘閣)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記錄은 이 “鑄鐵錢” 以前의 高麗史의 記錄을 보면 알수가 있다. 또 增補文獻備考 卷之二百二十 校書館條에 보면,

高麗置內書省 掌經籍祝疏 成宗改秘書省 有監少監丞郎校書郎正字 文宗定判事監一人少監一人丞二人郎一人校書郎二人正字二人校勘二人(略)

라 있으니, 이는 高麗史七十六 志卷第三十 百官一 典校寺條의

典校寺掌經籍祝疏 國初稱內書省 成宗十四年改秘書省 有監少監丞郎校書郎正字 文宗定判事秩正三品 <文宗五年 內史門下省奏諸司判事本皆權帶近皆爲祿官有遠古制請改之從之>監一人(下略)

의 記事와 맞는 것이다.

이 秘書省은 宋에서 온 文士들을 校書郎으로 많이 任命했으니, 即

文宗 6年(1052) 6월에

宋進士張廷來授秘書校書郎(略)

文宗 14年(1060) 9월에

以宋進士盧寅有文才授秘書省校書郎

文宗 15年(1061) 6월에

以宋進士陳渭爲秘書校書郎(略)

라 한것을 보아도 알수가 있다. 이때 當時에는 地方의 要請에 따라 中央에서 책을 印送하였으니

文宗 10年(1056) 8월에

西京留守奏(略) 請分賜所藏九經漢晉唐書論語孝經子史諸家文集醫卜地理律筭諸書置于諸學院命有司各印一本送之

라 하였고, 이때 秘閣(秘書省)에 책을 많이 所藏한 것은,

文宗 17年(1063) 4월에

夏四月賜太子秘閣九經及傳百家書

라 記錄된 것을 보아도 確實하다. 그런데 한가지 重要한 事實이 있으니, 高麗史八 世家卷第八 文宗二의 文宗 11(1057)年 8月條에 보면 (高麗史節要 卷之五에도 있다.)

丙寅以秘書省校勘慶鼎相權知直翰林院 中書省言鼎相鐵匠之腐不宜清要職請削之王曰(略)

라고 나와 있다.

앞서 言及한 成宗時의 “鑄鐵錢”과 “鐵匠之腐”인 慶鼎相의 秘書省勤務 등등은 벌써 高麗의 中央에 金屬에 對한 鑄術의 知識이 存在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때 文宗은 많은 貢鐵로서 興王寺의 專用으로 하고 있음이 高麗史節要卷之五에 아래와 같이 記錄되어 있고,

春三月都兵馬使奏安西都護府界內鐵貢舊充兵器近創興王寺又令加賦民不堪若請減鹽海安三州二年軍器貢鐵專供興王之用以紓勞弊從之.

文宗 21年(1067) 丁未春正月에 興王寺가 12年만의 大役事 畢功하자, 8月에는 義天을 祐世僧統으로 任命하였다.

以上에서 우리는 늦어도 文宗 5年(1051)까지는 秘書省의 整備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宋의 學者들이 秘書省에 들어 왔고, 또 文宗 11年(1057)에는 벌써 鑄鐵은 秘書省에서 하나의 知識으로 된 事實을 알게되었다

文宗의 王子이며, 僧統인 義天이 여러차례의 努力 끝에 宋으로 逃入하였다가 宋에서 돌아 온것은 宣宗 3年(1086) 6月의 일이다. 이는 高麗史節要卷之六 宣宗 2年條에,

六月釋煦還自宋(略) 煦獻釋典及經書一千卷又於興王寺奏置教藏都監購書於遼宋日本多至四千卷皆刊行라고 記錄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正確한 日字가 表示되어 있지는 않지만 大覺國師文集卷第十五에 실린 “代宣王諸宗教藏彫印號”를 올려 顯宗時의 五千軸藏經을 秘藏한 것(刊行하여?)과 文宗時의 契經正文 千萬頌을 鑄行한것을 밝히고 諸宗教藏을 彫印한 것을 主管한 것도 짐작되는 일이며, 같은 大覺國師文集卷第十二에 실린 鑄錢論을 편것도 이 때 일 것으로 생각된다.

筆者가 얘기할려는 重點의 하나도 바로 이 鑄錢에 關하여 義天의 知識이 너무나 해박한 點인 것이다.

이 鑄錢에 關하여는 高麗史節要的 記錄이 뒷바침 하

고 있으니 同卷之六 肅宗 2年(1097)年 12月條에

詔曰…朕承先王之業將欲與民間大利其立鑄錢官使百姓通用

라 한것만 보아도 宣宗時의 鑄錢에 對한 議論이 이미 있었으며 獻宗在位의 11個月間을 말할수도 있음) 적어도 그 생각은 義天에서 나왔음이 짐작된다. 이 때의 鑄錢이 銅으로 된 것은 高麗史節要 卷之六 肅宗 6年(1101)月條에,

六月詔曰…近來姦民和銅鑄自今用銀瓶皆標印以爲永式違者重論(略)

라 보아 틀림 없다. 이 때가 義天이 生存中에 일어난 일들이니 義天이 鑄銅에 對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은 위의 記錄들로 보아 너무나 明白한 일이다.

義天이 宋에서 宣宗 3年(1086) 6月에 돌아와 興王寺에 教藏都監을 設置할 것을 奏上하여 刊行한 四千卷이 어뭇한 冊이며, 그것이 木板으로 刊行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大覺國師外集卷第十二에 실린 金富賦이 撰한 “高麗國五冠山大華嚴靈通寺 贈諡大覺國師碑銘(并序)의

(前略) 春南遊搜索所得書無慮四千卷皆塵昏○斷編簡壞舛俱收並拾包廙以歸請置教藏司於興王寺召名流刊正謬缺使上之鈔槩不幾總閱文籍大備學者忻賴甲戌春二月(略)

라는 記錄과 이를 다시 李能和師가 朝鮮佛教通史下編에

遂重購求書于中國以及契丹日本 又於辛未春南遊(以下前同文略)

라 하였으니, 義天이 南遊한 것이 辛未年으로 이 때가 宣宗 8年(1091)이요, 다음 甲戌年이 宣宗 11年(1094)이니, 內容은 符合되나, 刊年사이에 5年~8年의 差異가 생긴것이 問題가 된다.

위 靈通寺碑銘으로 우리는 宣宗 3年 또는 宣宗 8年에 興王寺에 教藏都監 또는 教藏司라는 臨時官廳이 設置되어 四千卷이라는 經典이 刊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 刊行한 冊들은 “使上之鈔槩”하여 이루어진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筆者는 “鉛槧”이란 語句를 慎重히 檢討할 必要가 생겼다.

諸橋徹次의 大漢和辭典에 의하면

鉛

鉛의 俗字, 沿과 같음, 鐵, 熟語는 鉛과 沿을 보라(卷十一 p. 502)

라 하였고,

槧

書版, 簡札, 奏狀, 文書, 版本, 開版한 書籍(卷

六 p. 501)

로 나와 있으며, 鈔에서 보라고 한 鉛에 對하여는 鉛

납, 胡粉, 沿에 通함, 延과 같음(卷十一 p. 516) 이라 한 다음 그 熟語로서 “鉛槧”을 들고 있다.

鉛槧

文字를 塗抹하는데 쓰는 胡粉과 文字를 쓰는 板 輯하여 文筆을 말한다(卷十一 p. 516第二段)

그러면 “使上之鉛槧”에 알맞는 말은 무엇인가? 筆者는 “胡粉과 書板”, 또는 “文筆”이라는 熟語를 여기에 붙이기에는 全體 文脈의 構成으로 보아, 不可能한 것은 아니나, 이를 直譯하여 鈔(즉 鉛으로 된 版인 “鉛版”)이 알맞는 말로 생각된다.

이 鈔이라는 말은 楠齋叢話卷之七에서,

命世祖書綱目大字 世祖時爲首陽大君遂 範鈔爲字以 印綱目今即所謂訓義也(略)

라고 後代에 와서 쓰이고 있어, 丙辰字가 鉛活字라는 說이 있으며, 徐有渠도 林園十六志百五 怡雲志卷第七 圖書藏訪下 鈔印의 活版緣起 條에서

沈括夢溪筆談記畢昇膠泥刻字法斯乃活版之所權與也 視鑄版用力省而程工速後世其法衰備或用木造或用鉛 造或用銅造我東尤尚之(略)

와 한 바로 그 鈔에 該當되는 語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 鉛版이라는 말이 알맞는 可能性이 있는 것은 鑄鐵과 鑄銅은 앞서 말한 것 처럼 當時로서는 이미 知識化된 일이며, 鉛은 일찍부터 顔料로서 使用 되었으며, 陶器의 釉藥이나 유리의 製造에 利用된 것은 紀元前부터의 일이며(圖解考古學辭典) 우리 나라에서는 漢代에 맞는 時代부터 이미 쓰고 있었고, 鑄錢에 있어서는 銅과 함께 鉛을 使用했음은 貨幣의 化學的 成分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이는 우리 나라의 鑄字는 筆者가 다음 言及하는 鼓鑄法導入以後라고도 하며, 또는 當時의 興王寺의 僧이 三千餘가 있었다는 高麗史節要卷之六의 肅宗三年四月의

王如興王寺僧三千

이라는 數字를 들어, 反論할 것이나, 이때 이미 鉛版 또는 鉛活字로 된 金屬活字의 印刷가 可能한 것은 알 수 있겠다.

그런데 “教藏都監에서 찍은 冊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未決이다”라고 앞서 言及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續藏經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들의 目錄이 現存하고 있으니, 바로 新編諸宗 教藏總錄이다. 이 冊은 全3卷으로 되어있으며, 每卷의 本文 첫머리에는 海東有本具行錄이라는 題가 또 붙어

있다.

그리고 冊 卷首에 義天이 쓴 序가 있으니, 이를 보면 (略)予嘗竊謂經論雖俗而章疏或廢則流口无申矣輒效 昇公護法之志搜訪教□□爲己任孜孜不捨僅二十載于 茲矣□以所得新舊製撰諸宗義章不敢私秘鈔而出之後 有所獲亦欲隨而錄之脫或將來編次函帙與三藏正文重 之无窮則吾願畢矣時後高麗十三葉在宥之八年歲次庚 午八月初八日海東傳華嚴大教沙門義天叙

라 되어 있으니, 이 序를 지은 해가 宣宗 7年(1090) 8 月이다. 이 內容을 읽어 보면, 이 序는 大覺國師文集 卷第一에도 남아 있어 볼 수 있으나, 글자가 보이지않 는 部分이 있어 그 解釋에 若干의 混亂이 일어나고 있 다, 즉

得新舊製撰諸宗義章不敢私秘鈔而出之

의 “鈔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單語는 大覺國師文 集卷第一에는 鈔의 윗 部分과 아랫部分이 남아 있고, 또 而是 아랫 部分만 남아 있다. 末松保和의 校正本에 는 “叙而”로 日本의 寫本에서는 鈔而로 나와 있으며, 東亞出版公社의 韓國思想大全集 I에 실린 大覺國師文 集에서는 底本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欲印”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筆者가 海印寺 存版의 後刷를 直接본 바로는 “欣而” 또는 “鈔而”의 二者中하나임이 分明하다.

이 序를 쓴 해가 宣宗 7年(1090)이니 義天이 宋에서 돌아온 宣宗 3年(1086)보다 4年後이니, 이때 續藏經이 完刊되었다면 그것은 興王寺의 寺僧이 앞서 高麗史節 要의 記事처럼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鉛槧”以外的 方法으로는 그 刊行이 어려운 것은 事實이다.

그런데 現存하는 續藏經이라고 傳하는 冊들은 宣宗9 年(1092)부터 肅宗 4年(1099)사이에 「○○○年 ○○歲 高麗國大興王寺 奉宣彫造」라는 刊記를 가진 木板本이 거나 그 覆刻·重修·轉寫本들과 刊年이 밝혀지지 않 는 (또는 印出記가 전혀 없는) 金屬活字로 된 冊들 뿐 이다.

이들 有刊記 木板本들은 趙明基·朴奉石先生·大屋 德城·池內宏 등이 發表하였고, 筆者의 韓國古書年表資 料에 나와 있어 모두 알고 있겠거니와 남은 것은 完全 히 金屬活字로 印刷된 책들이 問題이다.

이 冊들은 大屋德城에 의해 紹介된 松廣寺의 開四分 律宗記義鏡鈔·神尾式春菴의 圓教六即義·역시 大屋德 城에 의해 紹介된 右旋行道破邪顯正義 等이다. 이들은 直指心經과 비슷한 系統의 活字로 印刷된 冊이며, 現在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六堂文庫에 收 藏되어 있는 故崔南善先生 舊藏의 釋氏要覽도 이와 꼭 같은 活字로 印刷되었다. 이 책의 料紙는 諸紙로서 古

한 것이 高麗때 것이 틀림 없으며, 活字의 鑄造한 것이나, 字型의 古字가 많은 것과 組版式이 拙하고 심어는 避諱·缺劃이 나타남을 보아 直指心經보다 오래된 金屬活字本이 틀림 없으나, 從來의 書誌學者들은 이를 朝鮮中宗·明宗間의 木活字로 認定하여 無視해 버렸던 것이니, 이는 稿를 달리하여 紹介하겠다.

筆者는 다시 強調하거나와 續藏經은 비록 義天 生存 中에 興王寺에서 그 一部分이 나중에 木板으로 彫造되었지만 그 大部分은 “鉛槧”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義天의 目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完刊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點이다. 一部 사람들이 序에 있는 “欲印”이라고 誤植된 것을 보고, 마치 目錄은 準備를 위한 것이고, 또 宋高이 板本 몇 張을 들어온것 또는 地方寺刹에서 再刊 또는 補刊한 것을 들어 續藏經이 全部 木板으로 이뤄졌다고 論斷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一部에서 말하는 鼓鑄法導入이 高麗金屬活字 發明의 始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이를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高麗史節要 卷之六 肅宗 7年壬午(1102) 12月條에 보면,

十二月制曰 富民利國莫重錢貨西北兩朝行之已久吾東方獨未之行今始制鼓鑄之法其以所鑄錢一萬五貫分賜宰樞文武兩班軍人以爲權與

라 있고, 또

以始用錢告于太廟八陵百官表賀

라 記錄되어 있다. 이것은 그 보다 앞서 成宗 15年(996)의 “鑄鐵錢”의 記事와 矛盾된다. 宋과 遼에서 이미 行해진 錢貨의 制度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前부터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考古學的인 發掘에 의해 많은 中國의 錢貨 特히 明刀錢等이 出土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成宗時에 鑄鐵錢을 한것은 우리 나라의 先史時代에 이미 鐵器文化가 있는 것을 보아도 事實로 보아야 할 것이다. 鼓鑄法이 복같은 틀로 鑄造하는 것이 라면 이는 中國에서는 周代의 青銅器 製作時에 있었던 일이며, 우리 나라에도 青銅器文化가 存在했었고, 또 鎔范續續 發見되고 있다면, 鼓鑄法이 肅宗 7年(1102)에 처음 始制되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鼓鑄法과 우리의 金屬活字의 始用과 併行시키는 것은 再考되어야 하겠다.

위에서 高麗의 金屬活字의 起源을 살펴 보았다. 우리의 金屬活字의 始用年限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金屬活字로 印刷된 冊이 오랜 것이 나올 可望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알려진 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南明泉和尚頌證道歌

이 冊은 그 覆刻本이 神尾式春과 國立中央圖書館 및 서울 特別市立 鍾路圖書館에 남아 있다.

神尾藏本은 昭和六年(1931)十月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서 있는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의 寫眞帖에 일찍부터 紹介되었으며, 國立中央圖書館藏本은 그 舊藏者인 金斗鐘博士가 書誌 第一卷 第二號에 跋의 書影을 發表하였으며, 孫寶基博士가 “한국의 고찰자”에 그 原寸의 影印을 紹介하였으며, 鍾路圖書館의 中宗 21年(1526) 刊 深源寺 開板本은 그 “장서목록—고서해제편”에 紹介되어 있다.

이 冊의 卷末에는 아래와 같은 跋文이 붙어 있으니 天南明證道歌者禪門之樞要也(略) 於是募工重彫鑄字卒以壽其傳焉時己亥九月上旬中書令晉陽公崔 怡 謹誌

라 한 것으로 보아 高宗 26年(1239)에 鑄字本을 重彫하였다 하였으니, 이미 그 以前에 金屬活字로 印刷된 冊이 있었다는 證據가 되는 것이다.

이 책에 對하여 金斗鐘博士는 「本印本을 보면 字體의 大小가 고르지 않으며 字行의 縱橫線이 一致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그 字形에 있어서도 金屬活字로 된 原本에 依據된 것이라고 斷定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여러가지의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 따라서 그 原刻本이 金屬活字가 아니고 木活字로 된 印本이었으리라는 것은 推定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高麗에서 사용된 鑄字이라는 것이 金屬活字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速斷해 버리기에는 疑問된 點이 없지 않다」고 斷定해서 말하고 있다.

이는 書籍店의 鑄字를 金屬活字로 肯定키 힘들다고 했는데도 直指心經이나 心要法門과 같은 金屬活字本이 確認된 것만 보더라도, 고쳐져야 할 말인 것이다.

筆者는 이 證道歌 역시 跋文의 말대로 틀림없이 金屬活字로 印刷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證道歌를 적은 活字는 官鑄系의 活字라 말하고 싶다.

이와 비슷한 型態의 字體로 된 覆刻本이 많이 現存하고 있으니, 梵網經菩薩戒나 不思議和尚歸寂訣 등이 그것이다. 이 官鑄系의 金屬活字本의 特徵의 하나는 無界라는 것이다. 特히 이것은 佛書에 많으며, 그 原本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인지, 아직 確認된 것이 많다. 그러나 그 覆刻本들이 위에 든 예 以外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 머지않아 究明이 될 것이다.

2. 詳定禮文

이 책은 일찍부터 東國李相國後集卷第十一에 실려있는 李奎報가 晉陽公을 代行하여 지어올린 그 新印跋尾에 依하여 알려진 것이니, 從來의 覆刻本이 跋尾의 題

를 “新序詳定禮文跋尾”라고 誤刻되어 있는 것을 學者들이 모르고 引用한 것을 閔泳珪恩師께서 古槧本에서 確認하여 訂正한 것이니, 그 跋尾의 全文은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

(前略) 本朝自有國來其禮制之損益隨代靡一病之久矣至 仁廟朝始勅平章事崔允儀等十七臣集古今同異商酌折中成書五十卷命之曰詳定禮文流行於世然後禮有所歸而人知惑矣不是書跨歷年禩簡脫字缺難於攷審豫先公迺令補緝遂成二卷一付禮官一藏于家其志遠也果於遷都之際禮官遺遺未得賣來則幾若已廢而有家藏一卷得存焉豫然後益諸先志且幸其不失遂用鑄字印成二十八本分付諸司藏之凡有司者謹傳之勿替毋負豫用志痛勤也月日某跋

이를 보면 高宗 21~28年(1234~1241) 사이에 50卷이나 되는 많은 卷數의 冊을 28部나 적어서 分藏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 新印跋尾를 收錄한 東國李相國全集·後集의 古槧本の 版型이 直指心經의 版型과 너무나 닮아있고, 또 字型이 그 보다 古體이며, 活字本의 覆刻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또 崔允儀(1102~1162)가 平章事였을 當時(1162~)에 이 詳定禮文이 어떤 方式으로 印刷되었었나 하는 것도 疑問이다.

3. 心要法門

이 冊은 筆者가 지난 5월에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에서 確認하여 發表되었든 冊으로 其名이 淸涼苔順宗心要法門이다.

이 책은 金屬版으로된 人物畫·역시 金屬版으로된 陰刻字·金屬活字의 中字와 小字로된 本文 大字로된 아래와 같은 刊行跋이 실린 金屬活字本으로서 그 印出年度는 忠烈王 23~24(1297~98年으로 推定되었다.

刊行跋의 앞 2行을 略한 全文은

順宗問而淸涼苔圭峯註而忠達科遂成一卷之書總括此心之要中奉大夫崇福使別不花鳳彰善本日覽微言抽施餘資刊行妙典上祝

이다.

이 冊은 筆者의 錯誤로 淸涼苔의 刊行跋은 金屬活字 卷首의 人物畫와 陰刻된 本文과 原本刊行跋은 銅版으로 推定되었고, 또 本文은 木活字(?)라 하여 紙上에 發表되었으나, 이를 다시 立體顯微鏡으로 100~150倍로 全文 確認한 結果 本文의 木活字(?) 部分까지도 甲寅字初印本의 小字처럼, 全部가 金屬活字로 印刷되었음을 確認되었다.

이 心要法門에 對하여는 筆者가 國회도서관보 1973年 6月號에 發表한 全文을 參照하기 바란다.

4. 直指心經

이는 完全한 書名이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로서 現在 佛蘭西 巴里 國立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는 卷下의 零本 1冊으로 卷末에

宣光七年丁巳 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는 分明한 印出記가 있는 全部가 完全히 金屬活字로 印刷된 冊이다. 寫眞에 의해 檢討해 본바로는 新鑄의 補字가 더러 섞여 있어 있으나 이는 木活字가 아니다.

이 책은 1901년에 Maurice Courant에 의해 그의 Bibliographie Coreéenne. Supplément에 發表된 것으로, 이를 다시 1972년에 朴炳善博士에 의해 金屬活字임이 再確認된 冊으로 이에 對하여는 孫寶基博士와 千惠鳳教授의 紹介가 도널월보에 실려있다.

이 책이 國內에 紹介됨에 따라, 寺刹에서까지도 金屬活字를 使用하고 있을 정도로 活字가 쓰여 있었으나 政府의 書籍院에 서의 金屬活字 使用은 肯定되게 되었다. 이때가 高麗 禰王 3年(1377)이니 書籍院을 奉 恭讓王 4年(1392)보다 15年이나 앞선다.

마지막으로 書籍院에 對하여 더 附言한다. 이 書籍院은 앞서 引用한 高麗史七十七 志卷第三十一 百官二 諸司都監各色의 書籍店 條에 註記된 淸涼苔 旬節을 만 것이니, 이를 高麗史節要卷之三十五에서

初置書籍院掌鑄字印書籍

이라 한 것이다.

이에 對하여 金斗鐘博士는 書籍院의 設置는 認定하면서도 「高麗末의 書籍院의 鑄字라는 것이 金屬活字이었으리라」는 것은 肯定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略)라 하여 高麗末 書籍院의 設置는 認定하면서도 金屬活字에 對하여는 肯定하기를 꺼렸든 것이다.

이와 같은 非肯定論은 實在하는 金屬活字本의 出現으로 고쳐져야 할 것은 當然하다.

高麗鑄字의 글을 攄에 있어, 鄭道傳의 三峯集卷之一 詩 五言絕句에 실린 아래와 같은 글을 紹介한다.

置書籍舖詩<并序>

夫爲士者 雖有向學之心 苟不得書 亦將如之何哉 而吾東方 書籍罕少 學者皆以讀書 不廣爲恨 豫亦病此久矣 切欲置書籍舖鑄字 凡經史子書諸家詩文 以至醫方兵律 無不印 俾有志於學者 皆得讀書 以免失時之歎 惟諸公 皆以興起斯文 爲己任 幸共鑿焉(詩는 略함).

이러한 三峯의 思想은 太宗에게도 이어졌고, 그것이 民族共通의 方法일지언데 高麗金屬活字는 朝鮮朝의 功臣錄券 그리고 癸未字로 이어진 것이다.

以上으로서 筆者는 高麗金屬活字本의 起源은 文宗에 까지 올라가며, 義天의 刊經은 鉛槧으로 그 一部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存本과 記錄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더 들어 보았다. 同學의 叱正을 바란다. (1973. 7. 25 稿了)